

Disciples Mission Week

SEPTEMBER 8-13, 2026



**Disciples
in Mission**
Everyone. Everywhere.
Every Need.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Children Worship Wonder & Welcome)

Laura Ann Phillips 목사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프로그램 디렉터, Disciples Home Missions

공동체 안의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God in Community)

Sonja M. Stewart와 Jerome W. Berryman의
Young Children & Worship에 실린 "유배와 귀환"
을 각색함

(이사야 58:6-10)

어린이 예배 경이와 환대 영상 링크는 행사일에
가까워지면 제공됩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제자회 선교주간을 위해
Disciples Home Missions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기독교교육, 소그룹 모임이나 묵상 시간 등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자리에서, 모든 연령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천천히 사막 상자(Desert Box)를 가져와 이야기
원 가운데 놓습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이야기 선반
(Sacred Story Shelf)으로 가서 '포로와 귀환 (Exile
and Return)' 자료가 담긴 트레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원으로 가져옵니다. 트레이를 자신의
곁에 내려놓고, 잠시 조용히 앉아 이야기의 의미가
마음속에 차오르도록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막 상자입니다.

사막 상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십시오.

안에는 사막의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조각을 우리
방에 두어야 합니다.

손을 천천히 모래 위로 움직이며, 모래를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 사막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사막은 이상하고 거친 곳입니다. 밤에는 매우
춥지만 낮에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물은 거의
없습니다... 사막은 항상 변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양을 짓고 다듬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뒤로 앉으십시오.
모래에 10센티미터 정도의 정사각형을 그리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정사각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십시오:

이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그 성스러운 도시를 자기
것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각형의 윤곽을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 지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사막을 지나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그곳은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상자의 가운데에 무거운 사슬을 놓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바빌론은 새로운 왕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새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두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사슬 한쪽
끝으로 옮기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열 가지 삶의
길(The Ten Best Ways to Live)'을 다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잊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있던 자리로 다시 옮기되, 서로
떨어져 있도록 배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둥글게 모아 놓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길을 다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를 꺼내어 놓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씩 서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 더 흩어 놓아 각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배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 곁에 돌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얽매어 자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끈을 감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한 사람을 배고픔에 쓰러진 것처럼 눕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도, 가족도, 자신을 지켜 줄
사람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돌을 치워 바구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라

끈을 풀어 바구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라

쓰러져 있던 사람을 다시 세우며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어라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을 이사야를 포함한 원 안으로
다시 초대하며 말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맞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라.

모든 사람을 서로 더 가까이 모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돌볼 때, 빛이 온다."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때, 빛이 온다."

"필요한 이들과 나눌 때, 빛이 온다."

사람들 가운데 촛불을 놓고 불을 붙입니다 (또는
전자초의 불을 켭니다).

빛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빛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Wondering 질문을
시작합니다.

Wondering 질문들

-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 누군가가 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
-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빛'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 사람들은 빛 가운데 함께 모여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빼더라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준비물

- 사막 상자
- 하나님의 백성(구약 이야기에서)
- 이사야(대림절 이야기에서)
- 무거운 사슬(유배와 귀환에서)
- 사람들을 위한 바구니
- 끈/줄과 돌을 위한 바구니
- 얇은 초(실제 촛불을 사용할 경우 성냥 포함)
- 재료를 담은 쟁반